

# 전일빌딩·송정역 등 5·18사적지 지정 추진

광주시,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

### 505 보안대 엠티, 청소년 창작스튜디오 등 활용 옛 국군병원 530명 수용 국가폭력 치유시설로

5·18 사적지 23호인 옛 국군광주병원이 입원환자 530여명을 수용하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치유하는 전문시설로 거듭난다.

인근의 505보안대 엠티는 어린이 역사 체험 및 청소년 창작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금남로 전일빌딩, 광주송정역, 광주일고, 윤상월열사 생가 등이 5·18 사적지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3일 5·18 기념사업의 청사진을 담은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5·18, 세계와 연대하는 광주공동체'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적 목표로 ▲'5·18학' 정립 ▲5·18교육의 생활 속 내재화 ▲5·18의 연대성 강화 ▲5·18 기억의 현대적 계승 ▲5·18공간외의 창조적 재현 등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전남대 5·18기념재단, 교육청, 5·18연구소, 5·18기록관, 5·18교육관 등 5개 기관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5·18 학술협의회'를 구성해 '5·18학' 정립과 5·18교육을 체계화한다. 또 5·18기념행사가 관람 위주의 상투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18기념행사위원회를 상시 기구화해 질적 제고를 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1999년 사적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및 공군부

대 ▲전일빌딩 ▲전남대 동문 ▲'시민군대비인' 윤상월열사 생가 ▲광주제일고 ▲숙실부락과 무등육아원 ▲지원동 시내 버스 종점 등 24곳을 5·18 사적지로 추가 지정할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5·18 사적지인 광주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활용방안도 담았다.

국군광주병원 엠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공공 치유 전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종 제시됐다.

국가폭력치유시설에는 1인 입원실 15개, 2인 입원실 66개, 5인 입원실 11개, 6인 입원실 11개가 들어선다. 외래환자 진찰실 8곳, 집단 상담실 1곳, 심리 및 상담 치료실 5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의 치유공간인 공공치유시설에는 5인 입원실 4개, 6인 입원실 5개, 심리 상담실 3곳, 물리·재활·적외선 치료실 등이 들어선다.

공용식당, 간호스테이션, 학습실, 휴게

실, 다목적실 등 지원시설과 은행, 카페, 약국, 매점, 헬스·사위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505보안부대 엠티는 3만2000여㎡ 부지와 분관, 면회실, 내무반 등 부속 건물 13동이 공원시설로 거듭난다.

어린이 공원, 5·18 역사체험 창의센터, 청소년 창작스튜디오, 5·18 순례자 방문자 숙소가 핵심 시설로 배치된다. 방문자 체험학습 및 동아리 지원공간으로 활용공간이자, 5·18의 기억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교육공간으로 기능한다. 부대 안 지형과 수목을 활용해 야외 공간은 모험놀이 터로 꾸민다.

국가폭력 치유시설에는 총 258억9000여만원, 역사체험 공간에는 총 39억6000여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착수, 준공까지는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5·18 알린 내외신 기자들 광주 온다

### 36년만에...옛 도청서 모여 취재하고 신문 제작

1980년 5월 광주에서 취재를 했던 국내의 기자들이 36년 만에 옛 전남도청 기자실에 모여 광주를 다시 취재하고 신문을 만든다.

광주시(시장 윤창현)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는 오는 5월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현장에서 취재한 외신기자들과 해직 기자 초청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는 최근 숨진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하고 1996년 5·18 특파원 리포트 출간식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행사다.

초청 대상 외신 기자들은 AP통신 테리 앤더슨, 뉴욕타임스 헨리 스크트스톡스, 심재훈, 슈트도이체자이퉁 게브하르트 힐셔, 오미우리 신문 마쓰나가 세이타로, LA 타임스 샘 제이슨, 볼티모어선 블레들리 마틴 등이다.

5·18 당시 광주 현장에서 취재를 하거나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해직된 국내

기자들도 초청한다.

초청된 국내의 기자들은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 설치되는 임시 기자실에 머물면서 '광주의 하루'를 취재하게 된다. 이들 기자들은 당시 전남도청에서 광주의 슬픔을 목격하고 기사를 썼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달라진 광주의 모습과 광주의 희망을 글로 쓰게 된다.

이들의 기사는 가상의 신문인 '광주의 아침'(가칭)이란 제목으로 실제 제작돼 시민에게 배포된다.

80년 5월을 취재한 기자들이 지켜온 진실과 열정을 기억하기 위해 미래 기자를 꿈꾸는 신문방송학과 대학생과 '멘토링 취재'도 이뤄진다.

이들은 힌츠페터 추모행사, 세미나, 시민과의 회고담, 시티 투어 등에 참여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교육청, 5·18 왜곡 역사교과서 대응 교사 교육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역사 축소·편향된 내용 등과 관련, 6학년 담임교사 700여명에게 적극 알리고 대응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3일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6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이달 중 실시, 현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내용을 분석해 알리

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사용 5~6학년용 사회과(역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제공해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교원 연수에 역사 강화를 필수로 개설하는 한편, 현장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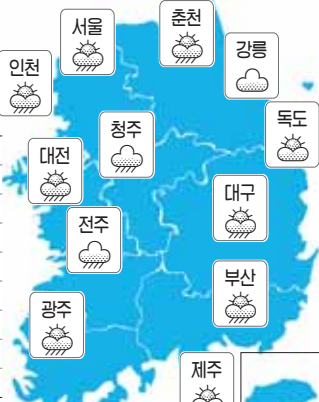
해돋이 06:58    날짐 02:57  
해질 18:31    달짐 13:31

###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9/17	보성	9/14
목포	8/15	순천	9/15
여수	10/13	영광	10/17
나주	8/18	진도	8/16
완도	8/15	전주	9/17
구례	7/16	군산	9/16
강진	8/15	남원	7/16
해남	9/16	속산도	9/14
장성	7/17		



### 비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5
남부	면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부	면바다(동)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부	면바다(서)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41	02:16	16:04	12:04
여수	05:43		12:04	
	17:37	23:28		

### 주간 날씨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18	7/13	3/16	3/14	2/9	0/8	0/9

###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 전남대·조선대 의·치대 편입생 98명 선발

### 내년 전국 27곳 681명...조선대 치전문 치대 전환

조선대·전남대가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생 98명을 선발한다. 의·치대 학사편입학은 전문대학원들이 의·치대 체제로 전환해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선대는 61명(의학 37명·치의학 24명), 전남대는 37명을 뽑는다. 전국적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22개 의대와 연세대, 경희대를 포함한 5개 치대 등 27곳에서 681명(의학 585명, 치의학 96명)을 선발한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치대로 전환하는 대학이 2017학년도에 많이 늘어나면서 2016학년도 선발 인원

(12개 의·치대 296명)보다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발표한 의·치대의 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존의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치대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대는 이에 따라 2015학년도에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과 함께 의대 체제로 전환했고 조선대는 2017학년도에 가톨릭대, 이화여대 등과 의대 체제로 돌아간다. 조선대는 2017학년도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치대로 복귀한다.

대학별 전형일정, 방법 등 모집요강은 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학들은 10월경 원수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

## 광주·전남 주말까지 봄비...일요일 황사 주의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인 6일에는 황사 발생 가능성도 있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5일까지 예

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이다. 특히 5일은 낮부터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9~12도, 낮 최고 17~1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